

# 2022.08.18.목 19페이지

재색지화는 심어독사 하니  
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 어다  
무연사즉부득입타방원 하며  
당병처 하여 부득강지타사 하며  
비육일 이어든 부득세관내의 하며  
행익자 에 부득당돌월서 하며  
경행차 에 부득개금도비 하며  
언담차에 부득고성희소 하며  
비요사 어든 부득출어문회 하며  
유병인 이어든 수자심수호 하며  
견빈객 이어든 수혼연영접 하며  
봉존장 이어든 수축공회피 니라

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, 몸을 살피 그른 줄 알아서 모름지기 항상 멀리 하여야 한다. 할일 없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집에 들어가 말며, 은밀한 처소에서 구태여 남의 일을 알려 하지 말며 , 육일이 아닌 날에는 내의를 빨지 말며, 양치하고 세수할 적에 큰 소리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며, 음식을 돌리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, 거닐 때에 옷자락을 헤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, 말을 할 적에 큰 소리로 웃거나 시시닥 거리지 말아야 한다.

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밖에 나가지 말며, 앓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 주고,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아들이며, 어른을 만났을때에는 공손하게 길을 비켜야 하느니라